

광주에 '재즈클럽' 생겼다

서울 대학로의 '천년동안'은 재즈 클럽으로 유명하다. 매일 매일 끊임 없이 이어지는 공연에 클럽을 찾은 사람들은 음료수 한잔, 와인 한잔 앞에 두고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긴다.

광주에도 매일 재즈 라이브 연주를 들을 수 있는 클럽이 생겼다. 지금까지 카페에서 재즈 공연이 열린 적은 있지만 연중 내내 재즈 공연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곳은 이곳이 처음이다.

광주 사직공원 인근 카페촌에 문을 연 '마일즈'에서는 매일 밤 9시, 10시, 11시 세 팀의 재즈 뮤지션들이 출연,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지역 실용음악과 학생 등 아마추어부터 프로연주자까지 모두 참여

사직공원 카페촌 거리 '마일즈' 오픈 매일 밤 9~12시 재즈 뮤지션들 출연 '잼 콘서트' 대학교수·연주인들 난장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유명 재즈 뮤지션 마일즈 데이비스에서 이름을 따온 '마일즈'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크로스 오버 앙상블 '허브'의 방극만 대표가 문을 연 곳이다. 간간히 카페에서 연주회를 가졌던 방식은 연주회가 흐지부지 되고, 가게들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아예 직접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적인 부담이 뒤따르기는 했지만 음악인들이 마음껏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을 저질렀다.

특히 최근 들어 대학 실용음악과들이 강세를 보이는 등 지역에 연주인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일을 부추겼다.

현재 동신대·남부대·광신대·남도대·초당대·대불대 등에 실용음악학과가 있고, 클래식만을 가르치던 광주대 음악

학부에서도 몇년 전부터 실용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각 대학 교수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버클리 음대 등에서 정통 재즈를 공부한 이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일부 교수들은 서울에서 출퇴근 하지 않고 아예 광주에 정착하는 추세여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고 있다.

또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학원들도 속속 문을 열어 '미래의 연주자'를 꿈꾸는 이들도 많다.

'마일즈'에서는 매일 'A 트리오', '웨이드 오브 블루', '범스 블루스', '김수근 퀸트', '박수영 재즈 퀸트', '마조람', '문경미 재즈 트리오', '유보연 퀸트', '임민수 트리오' 등 프로그래밍과 각 대학 실용음악학과생들이 공연을 갖는다.

특히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클럽이 생



최근 문을 연 '마일즈'는 매일 재즈 연주를 만끽할 수 있는 재즈 전용 클럽이다.

겼다는 게 알려지면서 다양한 연주자들이 팀을 꾸려 공연장을 찾는 등 '공간'이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얼마전 찾아간 카페에서는 동신대 실용음악과생들의 연주가 있었다. '흑인 오르페' 등의 음악을 들려주며 연주자들도 흥이 나고, 관객들도 행복해했다.

'마일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잼 콘서트'다. 각 대학 교수들과 연주인들이 서로 자유롭게 어울려 난장을 벌이는 연주다. 또 마지막 주 수요일을 '마일즈 데이'로 명명, 뮤지션들이 한 데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외지 재즈 뮤지션들 초청 공연도 갖는다.

'마일즈'는 또 연주 모습을 촬영해 케이블 TV 등에 납품하는 등 '문화콘텐츠화'하는 사업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일즈'에서 공연을 보려면 티켓(7천 원)을 끊으면 된다. 와인과 간단한 카나페, 비타민 워터를 마실 수 있으며 맥주·와인 등은 따로 판매한다.

방극만 대표는 "부산과 대구에는 8개의 재즈 클럽이 운영되고 있지만 광주는 재즈 음악의 불모지나 다름없다"며 "마일즈가 연주자들과 애호가들에게 의미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062-675-4027.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의 고대 웅관' 등 학술자료집 6권 발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범)가 최근 호남지역 문화유산연구의 주요 성과를 담은 '한국의 고대 웅관' 등 학술자료집 6권을 발간했다.

'한국의 고대웅관'은 고대 웅관(甕棺) 유역의 독특한 묘제(墓制)인 대형 웅관(甕棺)에 대해 2007년과 지난해 각각 열었던 연구학술회의의 발표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영산강유역 마을의 역사와 문화'는 영산강 유역 나주지역의 3개 마을에 대한 고고, 역사, 건축, 민속조사 성과를 담은 보고서다.

'역사문화환경 조성연구'는 지난해 개최한 '나주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며 '호남 문화유산 문헌목록'은 호남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 단행본 등 학술자료 3천500건의 목록을 수록했다.

이외에도 '나주 동곡리 황산고분', '나주 화정리마산고분군·대안리 방두고분' 발굴조사 보고서도 함께 발간됐다.

'한국의 고대웅관'은 시종 서점에 판매되며 나머지 책은 대학도서관, 박물관, 주요 국립공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컬렉터들 숨겨 둔 소장품 보러 오세요"

서양화가 이매리 뉴욕 화단 데뷔

'오마주 베트남과 한국의 미술세계'전 D 갤러리, 15일~11월4일 40여점 소개

최근 광주시 동구 대의동에 문을 연 'D 갤러리'(대표 김영삼)가 지역 컬렉터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기획전전을 마련한다.

D 갤러리는 15일~11월4일 '오마주 베트남과 한국의 미술세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평소 베트남 미술에 관심이 있던 최창준·한·베트남 미술교류협회의 소장품 40여 점을 모았다.

베트남의 국민화가로 불리는 부이 썬 파이(1920~1988) 등 베트남 현대미술가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망라했다.

부이 썬 파이의 '하노이의 옛 거리'를 비롯해 베트남의 풍경과 일상을 그린 작품들이 전시된다. 독자에 골하지 않고 예술혼을 불태운 베트남 작가들의 작가 정신을 엿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래의 불확실성을 화폭에 담은 김선희 화백의 '유비 드림' 등 국내 작가들의 작품도 눈에 띈다.

특히 파리에서 활동했던 서양화가 박일주씨의 작품이 45년만에 국내에서 소개되며, 광주 출신으로 뉴욕에서 10년간 백남준 선생과 작업을 함께했던 최인준씨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개막식이 열리는 15일 오후 5시30분에는 베트남 이주여성들 초청해 초콜릿 파티도 열 예정이다.



부이 썬 파이 작 '하노이의 옛 거리'

이제앞서 D 갤러리는 지난해 4~21일 김 관장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개관 기념전을 열었다. 이 전시에는 오지호, 천경자 화백 등 국내 대표 작가들과 피카소, 앤디워홀, 데미안 허스트 등 해외 작가의 작품이 대거 출품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 관장은 "흔히 소장품은 컬렉터들이 공개를 꺼려 일반 관람객이 감상하기 힘들다"면서 "앞으로 지역의 유명컬렉터들의 소장품을 소개해 일반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801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텐리갤러리 '여성의 힘' 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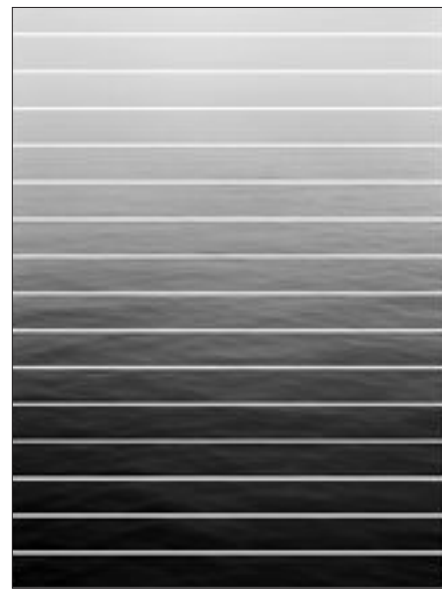
서양화가 이매리씨가 오는 26일까지 뉴욕 텐리갤러리에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는 작품을 전시한다.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여성의 힘과 이매리'를 주제로 다양한 공간이 주는 느낌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벽과 바닥에 규칙적인 배열에 따라 관을 설치한 작품은 공간이 주는 여운을 느끼게 해준다. 또 합관으로 만들어진 공간 위에 영상 이미지를 투사한 3차원적 작품 등도 눈에 띈다.

미술평론가 김광명(숭실대 교수)씨는 "작품의 여백이 주는 의미를 단순한 공간으로 규정짓지 않고, 시간성을 부여해 변화하고 기억되는 공간으로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목포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



'공-Emptiness'

을 졸업했으며 '空-間 드러내기 은폐하기'전 등의 전시회를 열었다. 추상미술 그룹 '에쁜 크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위 공무원 70여명 남도 문화 현장답사

전국 극장급 고위직 공무원 70여명이 전남을 찾는다.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은 1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고위정책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교육생이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남도문화현장답사를 위해 전남지역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생들은 14일 목포와 진도를 찾아 남도의 소리 체험과 미술품을 관람하고 완도 보길도와 해남 땅끝에서 문화해설사의 안내로 아름다운 유적과 풍광을 감상한다.

또 이들은 강진 다산 정약용 유적지, 보성 차밭, 정일박람회가 펼쳐 질 순천만의 갯벌과 갈대밭 등을 찾아 남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게 된다.

이번 답사여행을 주관한 조상열 대표는 "전국 고위급 공무원들이 남도문화에 대한 강의와 현장답사에 참여해 남도문화 전반에 대한 답사와 체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만큼 남도문화의 이미지 제고에 물론 관광자원의 홍보와 마케팅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461-15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 / 화 / 안 / 내

영화에이전시

메가박스

1관	내사랑 내결에 (124)	최고급관
2관	정승필 실종사건 (154)	
3관	게이머 (184) /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4관	애자 (154)	
5관	호우시절 (124)	
6관	패인 (124) / 내사랑 내결에 (124)	
7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4)	
8관	써로게이트 (154)	
9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 예매유 주저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상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원외국사거리 ♥예매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국가대표 (124)
2관	애자 (154) /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3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4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5관	패인 (124)
6관	게이머 (184)
7관	내사랑 내결에 (124)
8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4)
9관	써로게이트 (154)
10관	내사랑 내결에 (124)

원동시영영화사영 • 예매: www.joycb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대 이마트 사이) 매남점 (무역화관옆)



1588-7941 상무병원대 평행-(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1관	써로게이트 (154)
2관	애자 (154)
3관	패인 (124) / 정승필 실종사건 (154)
4관	정승필 실종사건 (154)
5관	국가대표 (124) /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6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7관	내사랑 내결에 (124) / 호우시절 (124)
8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4) / 게이머 (184)
9관	호우시절 (124)
10관	내사랑 내결에 (124)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65 매일 심야
• 아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8시 수영장 289-5757 • 하이 볼링장 262-0925
• 하이 골프장 251-5080 • 하이 담주점



고려시영 고객상담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대무운 하미스포박스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써로게이트 (154) /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4)
2관	정승필 실종사건 (154) / 애자 (154)
3관	나는 비와 함께 간다 (184)
4관	내사랑 내결에 (124) / 국가대표 (124)
5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 호우시절 (124)
6관	부산 (184)
7관	디스트릭트9 (184)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색깔있는 영화예매 • www.cinusa.co.kr / 1544-0070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호우시절 (124)
2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4)
3관	정승필 실종사건 (154)
4관	내사랑 내결에 (124)
5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4 (184)
6관	게이머 (184) / 국가대표 (12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 9, 입장권 구매, 교래에 한함)



세무소 기점 • www.primuscinema.com / www.jelicinema.co.kr •
총장동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